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한 공고한 안정과 그 기본요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론문)

몽골 정치경영아까데미야 교원
다그단다바 엔흐바뜨랄드

오늘의 세계는 우리 정치경제학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제기하고있다.

그것은 해결하여야 할 많은 정치적 및 경제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 많은 문제들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나라의 안정에 관한 문제이다.

매개 나라의 안정문제는 그 나라의 공고성과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세계적인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안정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에서도 넘어질 위험이 없이 공고한 상태나 환경에 놓여있다거나 균형적인 좋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런 의미에서 나라의 안정에 대하여 론한다면 그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붕괴되거나 좌절되지 않는 나라, 모든 분야가 나라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할수 있게 갖추어져있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나라를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나라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안정된 나라에 대한 이런 표상을 가지고 세계를 둘러볼 때 가장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나라라고 말할수 있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나는 주체사상을 알게 되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주체사상의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여러차례나 방문하는 과정에 이에 대하여 알게 되였으며 이 나라에서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에 대하여서도 다소나마 파악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위협과 제재속에서도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이룩하고있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회주의강국이다.

자주정치로 존엄을 떨치고 일심단결로 위력한 나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세계적인 그 어떤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

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나라,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으로 조국과 민족,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지키는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처럼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 인민대중중심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이로부터 나는 이 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한 공고한 안정에 대하여 분야별로 서술하고 이러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에 대하여 두가지로 서술하였다.

한 나라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주는 세계적인 재부로 되여야 한다.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에 말려들어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생활전반이 불안정상태에 빠지고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과 침략책동으로 세계도처에서 류혈적인 참사가 빚어져 생활의 안식처를 잃은사람들이 자기가 태를 묻은 고장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이민문제가 세계적인 골치거리로 등장하고있다.

우리 몽골은 이런 나라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국가의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따라 배워 나라의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면 그것은 우리 몽골의 발전에 유익한것으로 될것이다.

이로부터 나는 이 론문에서 현시기 몽골의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서도 서술하였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몽골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별로 연구된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이로부터 론문에서 새로 해결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았다.

론문은 3개 장과 8개 절로 구성되여있다.

론문의 장, 절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한 공고한 안정에 대하여 분야별로 종합체계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나라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다.

력사적, 론리적고찰과 비교연구방법으로 도출한 결론이다.

우선 력사적으로, 론리적으로 고찰해보면 20세기 90년대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때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에서는 조선의 사회주의도 곧 붕괴될것이라고 하였으며 지어 3일 또는 3개월, 늦어서 3년내에는 붕괴된다고 하면서 《3.3.3》설까지

내돌렸다.

그들은 여론전만 편것이 아니라 실지로 북조선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할 전쟁계획까지 짜놓고 그것을 공공연히 공개하였으며 조선반도주변에 핵항공모함들을 끌어들이고 남조선에 신형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기회만 노리였다. 그들은 또한 국제기구까지 발동하여 각종 제재를 련발하면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였으며 공보수단들을 리용하여 이 나라의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온갖 모략선전을 일삼았다.

당시의 국제적환경뿐아니라 조선의 현실을 돌이켜보아도 보통 상식으로는 누구나 우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반봉건국가였던 조선은 20세기초엽 일제에게 먹히워 수십년간이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인력과 자원을 깡그리 빼앗아가고 지어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야만적인 략탈로 조선을 페허로 만들었을뿐아니라 패망하면서 모든것을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조국을 해방하신 1945년 8월 그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페허우에 서있었다.

조선은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그러나 5년만에 다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3년간의 전쟁을 겪지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조선을 방문하였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재더미만 남은 조선》, 《날새도 깃들 곳이 없이 타버린 땅》이라고 하였고 전쟁을 도발한자들은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은 외세에 의하여 오늘까지도 분렬의 고통을 안고있으며 외세의 남조선강점으로 항시적인 침략위협을 받고있다.

이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박책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있다.

이러한 력사적배경에다 온갖 불리한 국제적환경에까지 처한 사회주의조선은 20세기 90년대 시점에서 볼 때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한 기간은 30여년밖에 안되였다.

그러한 조선이 70여년의 력사를 가진 사회주의나라도 붕괴되는데 어떻게 견디랴하고 우려한것은 당연한 론리적귀결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비교연구를 해보아도 이런 우려에 부닥친다.

20세기 90년대 당시 쏘련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과학발전수준은 조선에 비할바가 아니였다. 쏘련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로케트, 각종 비행기와 함선들을 비롯하여 미국을 견제할수 있는 군사장비들을 생산하여 풍부하게 보유하고있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이였다. 또한 쏘련은 무한대한 령토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풍부한 자연부원과 우월한 사회주의경제제도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자본주의에 비할바 없는 경제적성장을 이룩하였다.

쏘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인탐사위성을 우주에 쐬올리는데 성공한 과학기술강국, 우주강국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어떠하였던가

물론 경제, 국방건설병진로선관철로 자위적방위력을 마련하는데 힘을 넣고있었지만 아직은 군사력에서 비행기나 잠수함을 만드는 쏘련과는 대비할바가 못되였다.

경제력에서도 쏘련에 비할바가 못되였고 과학기술도 아직은 최첨단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있던 때였다.

당시 해당나라들이 처한 환경을 놓고보아도 쏘련은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나라라는 우상에 많은 가맹공화국들을 가지고있었고 유엔상임리사국으로 국제문제해결에 거수기를 발동할수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령토나 인구수에 있어서 크지 않은 사회주의조선은 외세의 강점으로 민족분렬의 아픔을 안고 있었고 항시적인 침략위협을 받고있었

으며 제국주의뿐아니라 대국주의, 지배주의자들과의 투쟁도 벌리면서 자주적대를 견결히 지켜가야만 하였다.

이 나라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음이 없이 오직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만 하였다.

뿐만아니라 정의와 진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온갖 적대세력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만 하였다.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기고 악착한 제재책동,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이 나라의 경제가 악화되고 인민생활도 어려워졌다.

이처럼 력사적으로나, 당시의 군사, 경제력과 두 나라가 처한 국제적 환경과 조건의 유리성에서 볼 때 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참으로 대비할바 없이 큰 차이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니 보다 큰 힘을 가지고 보다 유리한 환경에 있던 사회주의 쏘련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를 끝까지 견지할수 있으리라고 믿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벗들도 우려의 눈빛을 감출수 없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벗들까지도 사회주의수호를 우려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엄혹한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으로 치달아 오르고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자립적경제력을 가진 나라, 강력한 군사강국, 생산공정의 무인화도 마음먹은대로 실현하는 과학기술강국, 인민의 꿈과 리상이 그대로 현실로 펼쳐져 누구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누리는 리상적인 인민의 나라, 문명국이 바로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 모든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나라임을 실증하는것이다.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이처럼 위대한 변혁을 이룩할수 없는것이다.

제1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한 공고한 정치적안정에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공고한 정치적안정을 이룩하고 그에 기초하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정치는 어느 사회에서나 다 있게 되는데 해당 사회가 어떤 정치를 실시하는가 하는것은 정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달라진다.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이 된 사회에서는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고 착취계급이 정치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가 실시된다.

정치적안정은 당과 국가가 그 사회를 이루고있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를 실시할 때 이루어질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 즉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참다운 사회주의나라이다.

국가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모두가 인민들의 지지와 찬동속에 선출된 인민의 참다운 대표자들이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들이다.

인민이 정치의 주인으로된 나라,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는 정치가 실현되는 이 나라야말로 가장 공고한 정치적안정을 이룩한 나라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이 가장 공고한 정치적안정을 이룩하였다고 하는것은 대국들의 그 어떤 압력에도 끄떡없이 자주정치를 실시하며 세계의 그 어떤 정치풍파에도 흔들림없이 자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

으로 우뚝 서있다는것이다.

론문에서는 세계적인 그 어떤 정치풍파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서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고한 정치적안정의 참모습과 그것이 어떻게 이룩될수 있었으며 정치적안정이 사회의 다른 분야의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공고한 정치적안정의 본질적 내용에서 중요한것은 자주정치와 일심단결이다.

1) 자주정치는 이 나라가 이룩한 정치적안정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는 동시에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모든 분야의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해설하였다.

자주정치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것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정치이다.

다시말하여 해당 나라를 이끄는 당과 국가가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조국과 인민,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남의 힘이 아니라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를 자주정치라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정치는 무엇보다도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정치가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한다는것은 정치의 목적을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둔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당과 국가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맞게 세우고 철저히 관철하는 방향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맞게 세우고 철저히 관철하는 방향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이에 대한 실례로 전후복구건설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채택

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들수있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이다.

기성경험으로 보나 당시 조선이 처한 환경으로 보나 이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어려운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전쟁으로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추켜세워야 할 요구를 실현하려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만 하였다.

당시 대국주의자들은 조선은 지하자원과 과일이나 팔고 기계는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라고 훈시하는가 하면 국내의 종파사대주의자들도 이에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 나라의 발전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는 주체적인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던것이다.

이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설수 있었으며 인민생활도 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이처럼 자주정치는 당과 국가가 모든 로선과 정책채택에서 자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실현시켜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정치는 다음으로 국제정치관계에서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정치의 자주적성격은 다른 당,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표현된다.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은 자주정치의 본질적 징표의 하나이다.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적리념으로 삼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면서 국제정치문제해결에서 자기 나라의 자주적리익을 옹호하고 자주적인 권한을 행사

하며 국제사회의 자주적인 일원으로 살며 발전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정치는 다음으로 세계무대에서 높은 국제적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자주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무대에서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정치정세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며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오늘 공정한 국제질서를 확립하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국제관계발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자처하는자들은 《세계의 일체화》를 떠벌이면서 현세계를 저들의 지배와 독점에 기초한 《일극세계》로 만들려고 광분하고있으며 군사적위협과 강권외교로 세계의 정의와 평화, 안전을 극도로 위협하고있다.

이런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시하는 자주적인 정치, 외교활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일방주의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공정한 국제적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하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 안전을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떠밀어나가는데 커다란 영향을 준다.

제국주의자들은 공정한 국제정치관계질서를 확립하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높이고 원칙적으로 투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하고 국제무대에서 압살하려고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럴수록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강력한 전쟁억제력, 무적의 군력을 마련할뿐만아니라 그 어떤 련합세력들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완강한 정치적결단성과 배짱을 가지고 용의주도한 외교지략으로 적들의 기도를 꺾어놓음으로써 국제정치문제해결에서 제국주의나라들이 강권과 독단을 부리지 못하게 하며 인류의 평화와 안전수

호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게 한다.

하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두고 세계는 《작고도 큰 나라》라고 부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을 중시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문제와관련한 그 어떤 문제도 바로 해결할수 없게 된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처럼 자주정치는 자기 나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며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 국제정치관계발전에 이바지하고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 리상적인 정치이다.

자주정치는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담보하며 나아가서 모든 분야의 안정을 이룩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것은 정치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규제하는 정치가 자주정치로 되여야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성을 견지할수 있다.

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면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남을 무턱대고 따르고 숭배하며 자기의것을 소홀히 하는 사대의식을 없애고 자주적인 사고를 하게 할수 있으며 경제와 국방건설도 자력으로 할수 있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에도 변함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오늘과 같이 사회주의강국으로 솟아오를수 있은것은 자주정치를 일관하게 실시하여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확고히 이룩하였기때문이다.

자주정치실현이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이기에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활동의 첫시기부터 자주정치를 철저히 실현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의 정권

을 세우고 그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였으며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자기의 옳바른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였다.

2) 일심단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정치적안정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는 동시에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모든 분야의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철통같이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공고성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한 일심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조직사상적, 도덕의리적단결이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 일심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과 대중이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된 조직적인 단결이다.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조직성과 규률성에 기초하여 뗄래야 뗄수 없는 생명유기체와 같이 조직적으로 굳게 뭉쳤다는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이 이룩한 일심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고하게 결합된 사상의지적인 단결이다.

전체 인민이 수령의 혁명사상만을 굳게 믿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한다.

사회주의조선이 이룩한 일심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과 군대와 인민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결속된 가장 공고한 도덕의리적단결이다.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된 혁명대오안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작용한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동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자기희생정신이고 동지에 대한 끝없는 헌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결속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이 나라의 일심단결은 인민에 대한 수령의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차별없이 혁명대오에 묶어세우시고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신 혁명적 동지애의 최고화신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온 사회를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의 세계,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나가고 계신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오늘 사회주의조선의 초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되고있다.

세상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한 이 일심단결을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한다.

핵폭탄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였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공고한 정치적안정을 이룩할수 있으며 경제와 군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활기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다.

이 일심단결이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과 사상문화적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돈을 탕진하면서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백배로 폭발시키고있다.

일심단결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붕괴시키려는것은 망상이며 가장 어리석은자들의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일심단결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이 나라를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일심단결은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확고히 담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전반적안정을 이룩하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그것은 우선 일심단결이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적지반을 이루기때문이다.

천만군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면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적지반이 반석같이 다져져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서있을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일심단결이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추동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이다.

일심단결에 의하여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여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더 잘 실현하게 되면 나라의 정치적안정은 더욱더 공고하게 다져지게 된다.

이처럼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사회의 존재와 발전의 밑뿌리이고 추동력이기때문에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이룩할수있게 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전반적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들이 이룩할수 없는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된것은 우선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있기때문이며 조선로동당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기때문이다.

한편 인민은 혁명의 수령을 결사옹위한다.

사회주의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대를 이어 모시고 사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이의 령도를 받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또한 군민대단결을 실현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때문이다.

군민일치는 사회주의사회의 밑뿌리이며 자주위업수행의 천하지대본이다.

사회주의조선이 이룩한 군민대단결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이다.

군대는 인민의 생명재산을 희생적으로 보위하고 인민은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며 군인들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여 적극 원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민대단결을 이룩하고 있기에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강국으로 힘있게 솟구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또한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을 바로 세우도록 하였기때문이다.

혁명적군중관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 세우는 문제를 중시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감으로써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이 확고히 수립되고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굳건해져 일심단결은 끊임없이 공고해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또한 온 사회에 집단주의륜리가 지배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사회와 집단을 떠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언제나 집단속에서 살며 활동하게 된다. 여기로부터 사람들앞에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는 개인주의적관점과 집단주의적관점이 있다.

개인주의적관점은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것도 서슴치 않으며 개인의 탐욕과 치부에 만족을 느끼며 산다.

집단주의적관점은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집단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는것을 더없는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게 된다.

이 집단주의적관점에서 보는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사이에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륜리가 작용한다.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조국과 민족, 인민이라는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며 당과 국가는 수령의 뜻을 받들어 매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준다.

그래서 전체 인민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참된 삶을 안겨준 수령을 경모하고 받들어나가는것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긴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따르는 마음이 인민의 심장속에 신념화되여 마음의 기둥으로 튼튼히 자리잡고 집단내에서 개인과 개인 호상관에도 서로 믿고 사랑하는 혁명적동지애가 높이 발양되여 사회주의조선은 일심단결을 이룩한 나라, 가장 공고한 정치적안정을 이룩한 나라로 되는것이다.

일심단결을 이룩한 사회주의조선은 오늘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를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공고한 정치적안정을 이룩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의 안정을 이룩하고있으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기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정치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온 세상에 자기의 존엄을 높이 떨쳐나가고있다.

제2절. 경제적안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안정도 이룩하고있는 나라라는데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경제는 일정한 사회제도에서의 사회적생산과 교환에서의 사람들의 사회적관계의 총체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룩한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자기 나라의 부강번영과 자기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경제, 세계의 그 어떤 경제파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이 자기 발전의 길을 걷는 경제를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라의 경제적안정성은 자립적민족경제인가 예속경제인가, 자기 나라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끊임없이 담보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론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한 경제적안정의 본질적내용을 두가지로 나누어 해설론증하였다.

1) 자립적민족경제는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라고 해설하였다.

다시 말하여 자립적민족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의거하거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주적인 경제이며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하고 자기 나라의 자원에 기본적으로 의거하며 경제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발전해나가는 경제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건설에서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였으며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그에 의거하였으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와 연료,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리였다.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설하는 자립적민족경제는 대외경제교류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는 국제적인 경제적협조와 교류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더욱 발전시킨다.

이것은 자립적민족경제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떠드는 《폐쇄경제》나 《고립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경제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도 맞으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진척시켜 나가야 할 사회주의경제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도 맞는다.

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설하는 자립적민족경제는 이 나라의 경제적안정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전반적안정을 이룩하게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우선 이 나라의 경제적안정을 공고히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경제의 주체성, 자립성은 경제적안정을 이룩하였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근본징표의 하나이다.

주체성, 자립성이 보장된 경제는 자기 나라의 부강발전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며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이다.

제발로 걸어 나가지 못하는 경제, 남의 힘에 의거하는 경제는 사실상 전도가 없고 불안정한 경제이다. 경제의 명줄이 남에게 쥐여져있으면 자기의 의사에 맞게 경제를 운영해나갈수 없으며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같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순식간에 거덜이 나고만다. 이런 경제는 일시적으로는 번창할수 있어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아무리 경제규모가 크고 생산력이 발전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나라는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나라라고 말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이고도 종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고있기에 경제적안정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정치적안정을 이룩하고 나라의 안전을 군사적으로도 담보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도 경제적안정을 이룩하였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근본징표의 하나이다.

나라의 경제가 현대화, 정보화되였다는것은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기술장비들이 현대적인 수준에 올라서고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이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현대화되고 정보화된 경제를 가진 나라만이 대외경제분야에서도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으며 자기나라의 경제적 안정을 담보할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와 민족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국제경제무대에서 발언권을 잃기 마련이며 지어 민족적존엄까지도 무시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된다.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그 무슨 경제의 《고도성장》과 《경

제기술적우위》를 제창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그 나라 경제를 좌우지하려고 하고있으며 자주적인 나라들에 경제적제재를 가하면서 과학기술의 교류까지 막아나서고있는 조건에서 대외경제분야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자면 경제를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장비하여야 하며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것이다.

경제의 현대화는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해서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일관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현대적인 공장들을 새로 많이 건설하는 한편 이미 있던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있다.

오늘 이 나라에서 진행하는 개건현대화는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는현대화이다.

현대화되고 정보화된 경제를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이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진행되고있다.

경제가 현대화, 정보화된 이 나라에서는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생산에 도입될수 있도록 기술공학,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경제의 모든 부문의 경영활동에서 실리가 철저히 보장되여 경제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또한 경제적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정치적안정을 이룩하게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경제적안정을 이룩하면 사회주의사상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 정치적안정을 공고히 할수 있게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마련한 강력한 국가경제력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사상의 진리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사상을 생명으로 여기고 온갖 비사회주의사상을 반대하며 오직 사회주의사상만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게 한다.

이 과정에 사회주의사상진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져 나라의 정치적안

정이 공고해지게 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경제적안정을 이룩하면 자주정치를 빛나게 실현하여 공고한 정치적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경제는 정치실현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예속은 불피코 정치적예속을 낳는다. 공고한 경제적안정을 이룩하면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정치를 자기 식대로 해나감으로써 나라의 공고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또한 경제적안정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군사적으로 담보한다.

자립적이며 현대화된 국방공업을 기둥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 경제력은 자기 식의 위력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혁명군대를 무장시키고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완성하여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게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한 경제적안정은 끊임없이 향상되는 인민생활을 통하여 표현되며 담보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적안정을 이룩한 나라는 거리가 번쩍거리고 사치한 상품이 넘쳐나는 나라가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 인민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경제적안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서 표현된다.

그것은 우선 이 나라의 인민적시책에서 찾아볼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민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나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병나도 치료받을 걱정, 아이들을 공부시킬 걱정이 없으며 세금이라는 말도 모르고 산다. 세상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혜택을 이 나라 사람들은 날에 날마다 받으며 산다.

그것은 또한 국가가 인민들에게 보장해주는 문명한 생활조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물질적 및 문화적생활수단은 인간생활의 필수적조건이다.

물질문화적생활수단을 풍부하게 생산보장하여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아무런 불편도 모르고 부러운것도 없이 잘사는 나라가 바로 경제적안정을 이룩한 나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농사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 식량문제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축산업, 수산업, 과수업에도 힘을 넣어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력사를 창조하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주택조건도 마련해주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국가가 도시와 농촌에 문화주택들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해준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는 남의 집에서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 집이 없이 로천에서 밤을 새는 사람이 없다.

서방세계에서 100만 US$～300만 US$에 살수 있는 호화살림집들을 이 나라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 과학자, 교원들이 돈한푼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살고있다. 아마도 이 세상에 국가가 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나라는 사회주의조선밖에 없을것이다.

나라의 방방곳곳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애육원, 육아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과 부양할 사람이 없는 로인들을 위한 양로원이 궁궐같이 일떠서고 그 궁전에서 어린이들과 로인들이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다.

경제적안정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도 원만히 마련해주고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100여정보에 달하는 부지에 릉라인민유원지가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지고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미림승마구락부가 현대적으로 건설되였으며 시내의 곳곳에 공원과 유희장들, 문화봉사망들이 정갈하게 꾸려졌다.

인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서 보다 중요한것은 문명한 인간으로 준비할수 있는 교육조건을 갖추어주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누구나 태여나면 모든 보육교양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탁아소, 유치원을 거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오면 대학과정안을 마칠수 있는 교육조건들도 훌륭히 마련되여 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먹은대로, 희망하는대로 지식의 탑을 쌓을수 있다.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대학습전당들과 과학연구 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일터마다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들에서 사람들은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도처에 현대적인 극장과 영화관을 비롯한 문화봉사시설들이 꾸려져 인민들은 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권리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처럼 인민들에게 가장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 가장 공고한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나라로 되는것이다.

제3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에서는 먼저 평화적조건을 마련하여 나라의 령토완정을 이룩하고 방위력을 강화하여 그 어떤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안정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는데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여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함으로써 정치적안정과 경제적안정을 이룩할수 있는 평화적조건을 보장하고있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침략과 략탈이 없이는 한

시도 살수 없는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데서 정치적압력과 사상문화적, 경제적침투에 매여달리기도 하지만 종당에는 잔인한 힘의 방법에 의거한다.

군사력이 강하면 회유와 기만전략을 쓰고 약하면 가차없이 덮치는것이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비극적사태는 자기 힘이 강하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인민의 행복을 수호할수 없고 나라의 안정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군사력은 국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안정을 확고히 담보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사와 국방공업을 떠나서는 경제강국도 건설할수 없으며 나라와 인민의 안녕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자체의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지는것은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자체의 군력을 건설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여야만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경제적안정을 담보할수 있다. 누구의 압력에도 끄떡없이 자주성을 주장하는 정치적배짱과 경제건설을 마음먹은대로 설계할수 있는 용단도 강한 군력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나올수 있다.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은 우선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담보한다.

아무리 독립국가라고 하여도 강력한 군사력이 없으면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자기의 자주적대를 세울수 없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독립국가라고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자기를 지킬수 있는 군사력이 약하여 자기 인민, 자기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것을 알면서도 제국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굴욕적인 정치를 하는것이다.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평등권과 자주권을 고수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론리에는 국제적인 도의나 관례도, 공인된 국

제법도 통하지 않는다. 국방력이 약한 나라들은 군사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외관계에서 자기의 주견을 세울수 없고 내려먹이는 지령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국제무대에서 종종 부정의적인 목소리들이 정의와 진리를 모독하며 울리는가 하면 부정의적인 문건들이 국제회의들에서 꺼리낌없이 채택되는 일이 드문한것이다.

오직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만 자기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여 수행할수 있으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을 가질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함으로써 그 어떤 정치풍파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자주정치를 확고히 실현하고있으며 대외관계에서도 평등권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은 또한 나라의 경제적안정도 튼튼히 담보한다.

경제적안정을 이룩하려면 경제건설의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여야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마련되지 않는다. 제국주의침략을 막아낼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에 의해서만 경제건설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적안정을 이룩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핵위협을 가해오는 조건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처럼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은 나라의 안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론문에서는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어떻게 마련하였는가를 해설론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오늘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선 혁명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였다.

혁명군대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혁명군대의 사상이 흔들리면 총대가 흔들리고 총대가 흔들리면 결국 혁명의 보루가 무너지고만다. 지난 세기 수많은 병력과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자랑하던 이전 쏘련군대가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당도 사회주의도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존재마저도 유지하지 못한 쓰라린 현실은 다름아닌 군대의 비정치화, 비사상화의 필연적귀결이였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위적국방력에서도 혁명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군대는 전군에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의 군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차넘치고 강철같은 자각적군사규률이 확립되여있으며 가장 우월한 주체전법과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되여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또한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또한 위력한 국방공업을 창설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그 어떤 무장장비나 군수물자든지 자체의 힘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군수생산체계가 철저히 완비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수생산기지들은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또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국방력이자 전쟁억제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안정을 위해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도 강경히 맞서 정정당당하게 자기조국을 수호

할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소유하였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나라로 되였다.

제2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고한 안정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나라라는데 대하여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해명하면 국가의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을 알게 될것이다.

론문은 제2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에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상에서 가장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나라로 될수 있게 한 요인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설명할수 있겠지만 기본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지도사상에 있다고 볼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대를 이어 받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다.

제1절.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서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며 따라서 사회의 공고한 안정도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고 해설하였다.

사회적안정이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되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의 중심입니다.》

수령은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기때문에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고 사회적안정을 이룩하자면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인민은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는 옳바른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를 이어가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중심,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한 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시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 수행에도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사회주의조선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였으며 력사에서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세계도처에서 사회주의나라 들이 붕괴되는 그 엄혹한 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설계도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꼭 같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오늘 사회주의조선을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내여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

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다.

그이께서는 짧은 몇해사이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여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지시고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시면서 사회주의조선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만드시였다.

오늘 사회주의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은 모든 분야에서 공고한 안정을 이룩하고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있는것이다

제2절.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다른 하나는 국가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있다는것을 해설론증하였다.

옳바른 지도사상은 당과 국가로 하여금 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게하는 선결조건이다.

그것은 옳바른 지도사상이 당과 국가, 인민에게 사회발전과 운명개척의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게 하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우선 사람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기때문이다.

혁명사상의 진수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사상의 구성체계와 내용전반에 관통되여있는 핵, 기본알맹이로 되는 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류철학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철학적사유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사람중심, 인민대중위주의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수이라면 주체사상의 진수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사람의 리익은 개인적치부나 출세와 같은 탐욕적인 리익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근본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이다.

이로부터 주체철학은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인민대중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민적인 철학적방법론을 주는 사상으로 된다.

하기에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을 사람,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고한다.

주체사상은 사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에는 자연의 운동에서와는 달리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주체가 있다는것을 천명하고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 된다는것을 명시하고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대할데 대한 새로운 관점과 립장이 흘러나온다.

주체사상은 세계와 사회력사에 대한 철학적견해만이 아니라 인민대

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한마디로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원칙으로서 여기에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원칙들이 담겨져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혁명하는 당과 국가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과 국가가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만 인민대중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해줄수 있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모든 일을 인민대중에 게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할것을 요구한다.

혁명하는 당과 국가가 창조적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때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로 발동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은 혁명하는 당과 국가가 모든 사업에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울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을 구현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정신력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은 이처럼 그 전반내용이 인민대중을 제일로 위하고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리념으로 일관된 완벽한 지침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모든 내용과 구성체계를 전개하기 위한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근본핵, 기본알맹이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수로서의 주체사상의 근본핵은 바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 다시말하여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이라고 하며 그에 포괄되는 모든 사상리론들도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여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당건설리론, 자주적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울데 대한 문예리론,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할데 대한 경제건설리론, 무기보다 군인대중을 기본으로 볼데 대한 군건설리론 등 수많은 고귀한 사상리론들이 바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이민위천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키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숭고한 혁명사상이라는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전반체계와 내용은 인민대중을 하늘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에 철저히 의거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숭고한 리념으로 일관되여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조류들과 주의주장들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전개된 사상은 어디에도 있어본적이 없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좌우명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거룩한 혁명생애와 관련된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한평생을 인민대중속에서 그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시면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과정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있어서 인민대중은 언제나 친근한 스승이였고 온 넋과 열정을 다 바쳐 떠받들어야 할 하늘이였다. 자신을 인민의 평범한 아들로 여기시며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을 언제나 인민의 대하속에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불멸의 사상리론이 창시되고 심화발전되였으며 인민대중이 나아갈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출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대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의 좌우명도 이민위천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시절에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겪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을 그대로 자신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이시였다.

인민을 끝없이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풍모와 한생의 로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뜨겁게 맥박치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담아 주체사상을 정

립체계화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정력적이고도 헌신적인 령도의 전 과정은 오직 수령님식대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대로 인민대중을 제일로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숭고한 애민헌신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한생을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인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류사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숭고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특징지어지게 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를 갖춘 혁명사상이기때문이다.

인류사상사에는 각이한 구성과 체계로 전개된 사상리론들이 있었지만 정연성과 전일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완벽한 사상리론체계는 **김일성-김정일**주의밖에 없다.

내용에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사상리론체계일뿐아니라 구성에서도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다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혁명사상이며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내용과 구성부분들이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다.

주체의 혁명리론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혁명

리론은 현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그들의 투쟁경험을 일반화하고 세계혁명운동에서 나타난 오유와 결함들을 분석총화하여 혁명운동의 진로를 명시한 전략전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리론이 독창적으로 체계화되였다. 특히 시대적 및 리론적제한성으로 하여 선행한 혁명리론에서는 거의나 미해명문제였던 사회주의건설리론이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의 령도방법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체계와 수법이다.

령도방법문제는 혁명투쟁에서 리론실천적으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다.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여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옳은 령도방법문제가 해결되여야 성과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령도방법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를 운영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게 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느 로동계급의 당도 령도방법문제를 자기의 지도사상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체계화하여 내놓지 못하였다.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천명하고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체계화한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중요한 공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령도방법문제를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해명하였으며 특히 집권당의 령도방법,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방법을 새롭게 천명하고 완성하였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령도원칙으로부터 령도체계, 사업방법과 작풍문제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명되였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는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에만 고유한 구성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선군사상을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의 핵심적내용으로 포괄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며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그것으로 하여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혁명투쟁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총대로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이처럼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인것으로 하여 나라의 발전과 공고한 안정을 확고히 담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키기에 언제나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나라의 급속한 발전과 가장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었다.

제3장. 몽골의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서는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은 세계적인 재보이며 안정을 모색하는 모든 나라들에 좋은 처방으로 된다고 하였다.

나는 나의 조국 몽골을 사랑하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론문을 쓰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을 몽골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인다면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이룩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수 있지 않을

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이로부터 론문은 제 3장에서 현시기 몽골의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게 되였다.

제1절.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연구에서는 공고한 안정을 이룩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라배우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이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요인으로 작용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깊이 연구하고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이 나라의 경험을 깊이 연구하는것이라고 해설론증하였다.

1)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대한 연구사업강화에서는 앞에서 언급되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한데 있다고 해설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원칙에서 당과 국가활동을 벌리고있다.

인민이 주인된 나라에서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이미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소조들이 생겨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망라되여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활동을 활발이 벌려온 몽골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보급하는 연구조직들로서 몽골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와 주체사상연구쎈터, 주선협회가 있다.

몽골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에는 주로 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망라되여 있으며 주체사상연구쎈터에는 주로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망라되여 있으며 주선협회에는 주로 여러 기관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망라되여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보급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며 그것을 학술적인 연구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구현하여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보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론핵심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조선에 와서 직접 많이 배우고 몽골에서 강사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며 토론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보다 중요하게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원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로작들을 몽골어로 많이 번역출판하여 학습하도록하는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보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몽골의 실천에 어떻게 구현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연구보급활동을 벌리는것이다.

우리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보급하는것은 학습 그자체에만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몽골에 구현하여 몽골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몽골은 땅은 넓으나 인구가 적으며 대국들의 틈에 끼워 오래동안 자기 발전의 길을 걷는데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정세는 의연히 복잡하다.

우리의 령토와 자연부원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진 나라들도 많으며 점차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령토의 곳곳에 자기식의 말뚝을 박으려고 한다.

이런속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고 나라의 안정을 이룩할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그 방도가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준 혁명의 근본원리와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들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몽골의

조건에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우리 자신이 계속 깊이 연구하고 구현하여야 할것이다.

2) 나라의 안정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연구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이 나라가 어떤 정치방식으로 정치를 하는가를 깊이 연구하는것이라고 해설하였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고한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이 나라의 특유한 정치방식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준 사회주의정치방식에는 인덕정치와 선군정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와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인덕정치와 선군정치이다.

인덕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을 움직여 사회를 관리하는 정치방식이다.

인덕정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내용으로 한다.

인덕정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에게 차별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광폭정치이다.

인덕정치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모시고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며 모든 일군들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키우는것이다.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혁명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며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조선은 선군정치를 펼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였으며 강력한 군력을 마련하여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몽골에서도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이룩하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덕정치와 선군정치를 따라배워야 할것이다.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을 연구하고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의 또한 몽골의 구체적인 실정과 환경을 깊이 연구분석하고 사회주의조선의 경험을 그에 맞게 구현하는것이다.

혁명투쟁에서는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 고정격식화된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몽골의 구체적실정은 조선과 꼭같지 않다.

그러므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현하여 창조된 조선의 경험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해야 하는것이다.

제2절. 주체성과 민족성고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처럼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공고한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성을 살린다는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요구이며 지향이다.

모든 나라 인민들은 다 자기 조국과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지킬것

을 요구하며 자기 민족의 우수하고 고유한 특성을 고수하고 적극 보존발전시키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면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도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참다운 국제주의적관계이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투쟁경험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나갈 때에만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안정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애국애족의 립장을 지키는것이다.

애국애족의 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고수하고 민족성을 살릴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뿌리로 된다.

애국애족의 립장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당이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그 운명을 책임지는 립장에 서는것이며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해나가는것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해나가자면 당과 인민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언제나 자기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다.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자면 자체의 튼튼한 정치적력량과 군사적, 경제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해야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이다.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자면 민족자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

상교양사업을 적극 벌리며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살리고 적극 내세워야 한다.

우리 몽골에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적자존심과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땅을 남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령토수호정신, 넓은 대지처럼 풍만한 정서와 같은 몽골민족의 우수성이 있다.

우리는 몽골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보고 그것을 적극 내세워 인민들속에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야 하며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고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제3절. 온 세계의 자주화에서는 몽골의 부강번영과 공고한 안정을 이룩하자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해설론증하였다. 그것은 매개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의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고 밝혔다.

매개 나라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이 실현되면 매개 나라의 부강번영과 공고한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수 있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한다는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길로 나간다는것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위업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 투쟁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의 주체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이다.

우리 몽골도 반제자주력량의 일원으로써 우리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고 모든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반제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우리 몽골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이룩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혁명하는 나라들과 당들이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견지하는것이다.

우리 몽골은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맺는말에서 필자는 정치경제학자로서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는 나라의 안정에 관한 문제를 선택하고 연구하였으며 이 과정에 그 세계적모범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알게 되고 이 나라의 안정문제를 연구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론문을 서술하는 과정에 나는 마음과 달리 아직은 이 문제를 원만히 해설할만큼 준비되지 못하였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하지만 일단 시작한 문제여서 마지막까지 펜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 론문을 집필하는 과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모든 성과와 경험은 세계적인 귀중한 재보이며 자주를 지향하는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고귀한 지침임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하기에 나는 앞으로 안정문제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풍모와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들, 이 나라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 몽골에 적극 선전하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지역연구소, 우리 몽골의 연구소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세계적인 판도에서 선전하기 위한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결심을 굳게 다짐하였다.

이것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몽골과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를 위한 일이기에 여기에 여생을 바치는것은 학자인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며 더없는 영예로 될것이다.